

- 쌀 값안정을 위한 수매정책 촉구 -

건의문

존경하는 「김동태」 농림부 장관님 !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신 장관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충남 예산은 비옥한 농토와 농사에 알맞은 기후 조건으로 군민의 40%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통 농업군으로, 97년부터 4년 연속 단보당 쌀 생산량이 전국 최고의 실적을 올렸으며,

지난 봄의 사상 유래 없는 가뭄에도 농업인을 비롯한 전 군민이 힘을 모아 극복하여 올해에도 평년수준 이상의 풍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농업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보다 품질 좋은 농산물생산을 위해 노심초사하여 전력을 다해 온 4만여 농업인들이 땀과 노력으로 일구어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풍년의 기쁨을 누리보기도 전에 「쌀 대란, 재고량 급증, 쌀산업 전면수정」 등 쌀값 하락을 기정 사실화 하는 정부와 언론의 발표로 우리 농업인들의 가슴은 더욱 타들어 가고 한숨과 허탈감으로 정부의 미곡정책에 대한 불신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0년도의 정부수매가는 58,120원(조곡40kg 1등 기준), 금년에는 60,440원 인 반면, 농협 자체매입가격은 51,000~53,000원으로 가격차가 7천원 이상 되고 있으며, 쌀값은 작년 보다 10% 이상 하락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예산의 경우도 2001년 상반기 결산 결과 농협 및 민간 미곡종합처리장 5개소 전체가 적자 누적으로 매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WTO협정으로 정부 수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정부의 수매기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은 쌀산업의 핵심 기반시설로써, 현실적으로 다소나마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금년 수확기의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범 정부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여 주실 것을 11만 군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 입니다.

첫째, 올 미곡종합처리장의 자체매입 및 농협 시가매입 물량에 대하여 수매가와외 차액을 보전하여 농가의 실질적 소득 보장을 건의 합니다.

둘째, 쌀값의 계절진폭을 감안하여 정부공매를 최소화하고, 정부 재고량에 대한 대북지원 등을 모색하고, 정부보유미와 의무 수입쌀(MMA) 등을 가공용으로 저가 공급하여 쌀값안정을 도모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 WTO협정에 따른 정부수매 한계를 감안하여 현실적인 대안인 각종 직불제 등을 확대하여 근본적인 농가 소득 보장 대책을 건의 합니다.

넷째, 미곡종합처리장 자체매입 계획량 550만석을 전량 매입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정부지원 운용자금 30%이내 지원에서 전액 자금 지원과 금리를 현행 5%에서 무이자로 융자하여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재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개방 폭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는 하나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 마저 가격보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농민들의 쌀 농사 포기를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전국민의 주식이자 우리 농업인들의 주 소득원인 쌀 농사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시어 이 건의사항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2001. 10. 16 .

충남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영현	부의장 최무영	의원 권국상	의원 김동숙
의원 김석기	의원 김승기	의원 박병만	의원 박상문
의원 박순한	의원 신현문	의원 이주원	의원 이한두